

치유의 성사들

신성근신부

우리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질그릇 속에”(2코린 4,7) 담아 가지고 있다. 지금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골로 3,3) 숨겨져 있다.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상 천막집”에¹⁾ 아직 살고 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은 죄 때문에 약해지거나 잃을 수도 있다.²⁾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풍 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그 치유와 구원 활동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셨다. 이것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 곧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의 목적이다.³⁾

I. 죄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범하거나 되풀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1요한 1,8-10 참조). 그러면 ‘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누구라도 그에 대해서 명쾌히 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죄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그 성질상 신비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

1. 원죄

사람은 애초에 의로운 지위에 있도록 창조되었다. 불행히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남용하고 교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써, 하느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 이때부터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었다(창세 3장 참조).

1) 원죄의 원인

창세기는 하느님을 대항한 사람의 불순종을 상징적인 말로 묘사하고 있다(창세 3장 참조). 아담은 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하느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였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는 그의 모든 후손에게, 즉 인류 각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죄가 생겼고, 죄는 죽음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서 죽음이 온 인류에게 퍼졌다.”(로마 5,12)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1) 2코린 5,1 : 우리의 이 지상 천막집이 허물어지면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건물 곧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하늘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0항.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1항.

4) 죄는 그 어원에서 본다면 ‘화살이 빛나가다’, ‘과녁을 맞히지 못하다’에서 나왔으며, 이것이 곧 인간을 지으신 하느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빛나간 선택이며,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바탕을 두고 원죄가 첫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해졌다고 가르친다.

2) 원죄의 결과

각 사람이 물려받은 원죄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범한 본죄와는 다르다.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받았던 은총을 상실하여 죽음의 권세에 예속되게 되었다. 그러한 본성이 모든 사람, 나에게도 전해졌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 모두 죄 중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원죄는 각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닌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경향 또는 상태를 뜻한다. 그렇기에 사람은 선을 원하면서도 악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행복을 원하는데도 불행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원죄란 보통으로 말하는 ‘죄’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죄 안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도 ‘다만’ 원죄 때문에 정죄 되지 않는다는. 정지되는 것은 본죄, 어디까지나 원죄를 추인(追認)하는 개인적 결정 때문이다.

2. 세상의 죄

세상의 죄는 인류의 보편적 혼란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는 사람이 하느님의 광명과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 우리가 비록 개인적으로 범죄 할 때마다, 그것은 나 개인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웃과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만큼, 나의 죄는 사회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죄의 결과는 그 행위에 가담치 않은 사람들에게도 미친다는 의미이다.

우리 개개인도 엄청난 세상의 악 속에서 한 몫을 거두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도 ‘죄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는 죄를 개인적인 책임으로 강조하면서도, 집단적이며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점이 공존한다. 예수님께서도 죄에는 어떤 공동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신다.⁵⁾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범하는 악이 커다란 하나의 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없어지는 것은 여러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는 죄는 첫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아담 즉 사람이, 모든 사람이 범한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죄”다. 세상의 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타락이다.

3. 죄의 본질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과 깊은 관계로 맺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맺음을 조화

5) 마태 23,35 :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쏟아진 무죄한 피의 값이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요한1,29 :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있게 유지해 갈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맺음을 긴밀히 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느님과 이웃과의 사이의 맺음에서 멀어지고, 그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웃을 배반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어기고 악한 일들에 몰두한다. 그리고 피조물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범한 행위가 순전한 자유와 욕망에 기인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강요나, 내면에서의 착각이나 혹은 무지나 오류, 실수에서 범한 행위는 죄의 구성요인이 안 된다. 따라서 죄의 구성요소는 첫째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며, 둘째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여 그 행위의 나쁜 것을 알고 행한 것이다. 그리고 또 죄는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동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하느님의 백성 전체에 미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1코린 12.26).

4. 죄의 결과

사람의 소외, 고립, 하느님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 파괴는 사람의 아집과 죄의 결과이다. 사실 죄는 이웃과 하느님으로부터의 고립과 소외로 나타난다. 죄는 죽음을 낳는다. 사도 바오로는 아담이 모든 이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간파하였다(1고린 15.21-22). 그런데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 이상의 것으로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5. 양심의 가르침

양심이 하느님의 소리임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하느님은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나, 사람의 이성은 때때로 흐려지기도 하고 그르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양심은 가끔 애매하게 되고 또는 습관과 환경에 의해 마비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바른 양심을 가지도록 윤리와 도덕을 통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이 양심의 소리를 더 확실히 듣도록 하는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다.

신약시대에는 직접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규범을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신앙과 은총으로 비추어진 양심을 통해서 이러한 하느님의 소리를 명백히 듣는 것이다. 신앙과 은총과 양심에 의한 권고만은 항상 확실하며 그르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총을 통한 양심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할 때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질 뿐 아니라, 참된 행복과 기쁨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6. 죄로 유인하는 원인들

사람은 항상 죄에 대한 유혹을 느낀다. 물론 유혹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나,

성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유혹을 느끼고 그것을 물리쳤을 때, 그 유혹에 대한 승리감은 유혹에 빠져서 느꼈던 쾌락에 비할 바가 아니다. 유혹이 가져오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이요, 그 열매는 쓰디쓴 회한과 파멸이다. 그리고 유혹은 아주 교묘하게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한다. 우리는 그러한 요인들을 알고, 그것을 물리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유혹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만이다. 원조인 첫 사람이 빠진 유혹도 바로 이것이다. 교만은 곧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자로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나아가서 하느님까지도 무시하게 된다. 사람의 본성은 유한하면서도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하기를 원한다. 또한 무엇이든 현재 있는 그대로의 불완전함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행복한 상태를 추구한다. 그러나 사람이 이것을 하느님께 두지 않고 이 세상의 피조물에서 찾으려 할 때, 인간의 본성은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만다.

이 세상의 물질은 사람에게 불가결의 조건이지만, 지나친 애착으로 인하여 남의 물건까지 넘보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베풀어야 할 이웃 사랑까지도 거절하여, 때로는 몰인정하고 무자비한 행위까지도 하기에 이른다. 이 밖에도 정욕, 질투, 분노, 게으름 등도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죄의 상태로 빠지게 한다.

II. 고해성사(告解聖事)⁶⁾

“고해성사를 보는 교우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⁷⁾

1. 고해성사의 기원

1) 구약시대

하느님 백성의 역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간구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있다. 첫 사람이 범죄 한 후에도, 하느님은 벌을 내리시기 전에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먼저 구세주를 약속하셨으며, 니네베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자, 예정하셨던 벌을 거두셨다. 또한 다윗의 통회를 보시고 용서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마다, 통회하는 백성들의 그 죄를 용서하시곤 하였다.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 표시로써 재계와 고행을 하여,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통회의 표시로 어린 양을 속제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느님과의 우정을 다시 회복하곤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필요성과 하느님 없는 생활의 무가

6) 이 글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22항-1484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7) 교회 헌장, 11항.

치성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자기들이 지은 죄의 무거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들은 깊은 통회와 보속을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하느님은 오직 그러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셨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때로는 형식적인 속죄 행위에 치우치곤 하였고, 마침내 바리사이적인 신앙에 빠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셨다.

2) 신약시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을 가까이하시고 말씀과 행동으로 죄에 멎은 마음과 육체의 병을 고쳐 주시므로써 당신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마르 2,1-12 ; 루카 5,17-26 참조).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잘못된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은 곧 하느님으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첩경임을 가르치셨다. 즉 하느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를 요구하셨다.⁸⁾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신앙고백을 들은 후 수위권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죄권을 암시하는 약속을 하셨다.⁹⁾ 그 후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러주시고 사도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8,18)라고 말씀하시며 사도들에게 사죄권을 주셨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뒤에 평화의 축복과 함께 사죄권을 선포하신다.¹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수난과 죽음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자 함이며¹¹⁾, 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사죄권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이 밖에 사도들의 편지에도 화해와 치유, 그리고 용서에 관한 말씀들이 자주 열거되고 있다.¹²⁾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해와 치유의 잔치 초대에 기꺼이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2. 고해성사의 또 다른 표현

이 성사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호소와¹³⁾ 죄 때문에 떠나 있던 아버지께 돌아옴

8) 마태 6,12 :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9) 마태 16,19 :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0) 요한 20,23 :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1) 마태 26,26 :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12) 1베드 4,8 :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 줍니다.

에페 4,32 :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야고 5,16 :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을¹⁴⁾ 성사적으로 실현하므로 회개의 성사라고 불린다. 또한 이 성사를 참회의 성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죄인인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참회와 보속(補贖)이라는 개인적이며 교회적인 과정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성사를 고백 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 앞에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깊은 의미로는 이 성사가,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죄인에 대한 자비를 알아 뵈고 찬미하는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성사를 용서의 성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제의 성사적 사죄(赦罪)를 통하여, 참회하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용서와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 성사는 화해시키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화해 성사라고 부른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마태 5,24)라고 하신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3. 고해성사의 필요성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1코린 6,11).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입은¹⁵⁾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 선물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성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1요한 1,8).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루카 11,4) 하고 기도하라고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밝히셨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에페 5,27)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회개, 세례를 통한 새로운 탄생, 성령을 받음, 양식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당신 앞에 설 수 있게”(에페 1,4)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입문하여 받은 새 생명이 인간 본성의 불안정함과 나약함을 없앤 것은 아니며, 전통적으로 사욕이라고 부르는 죄로 기우는 경향을 없앤 것도 아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사욕이 남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도움을 받아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위한 싸움이다.

13) 마르 1,15 :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4) 루카 15,18-19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15) 갈라 3,27 :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4. 회개悔改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라고 호소하신다. 이 호소는 하느님 나라 선포의 핵심 요소이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는 우선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한다. 그러므로 세례는 처음으로 근본적 회개가 이루어지는 으뜸 자리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¹⁶⁾ 악을 버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곧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다.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호소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안에서도 계속 들려온다. 이 회개는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므로 끊임 없이 참회와 쇠신을 추구하는”¹⁷⁾ 온 교회의 부단한 임무다. 이 회개의 노력은 단순히 인간의 일만은 아니다. 이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응답하도록 은총으로 이끌려 고무된 뉘우치는 마음의 움직임이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 스승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 회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예수님의 한없이 자비로운 눈길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당신에 대한 그의 사랑을 세 번 확인하게 하신다. 이 회개에는 공동체적 차원도 있다. 이는 어떤 교회 전체에 대해 “회개하여라!”(묵시 2,5)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호소에서 드러난다.

5. 내적 참회

회개하고 참회하라는 예수님의 호소는 외적 행위, 곧 “자루 옷과 재”, 단식과 고행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 내적 참회가 그 우선 목표이다. 마음의 회개 없는 참회 행위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된 행위에 불과하다. 반대로 내적 회개는 이러한 태도를 가시적 표지와 속죄의 행위로 표현하게 한다.¹⁸⁾

이 내적 참회는 삶 전체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이며, 우리가 지은 악행을 혐오하고 악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동시에 내적 회개는 하느님 자비에 대한 희망과 하느님 은총의 도움을 믿고 생활을 바꾸겠다는 의향과 결심을 포함한다. 이러한 마음의 회개에는 교부들이 “영혼의 고뇌”, “마음의 회한”이라고 했던 구원에 유익한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

사람의 마음은 무디고 완고하다. 하느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¹⁹⁾ 회개는 무

16) 사도 2,38-39 :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17) 교회 헌장, 8항.

18) 요엘 2,12-13 :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

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애가 5,21).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신다. 우리 마음은 하느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게 됨으로써 죄의 두려움과 무게 때문에 떨게 되고, 죄를 지어 하느님을 모욕하고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죄로 찢리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회개하게 된다.

주님의 부활 후부터 성령께서는 죄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신다. 죄는 세상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밝혀 주시는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참회와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변호자’이시기도 하다.

6. 신앙생활에 있어 다양한 참회 형태

그리스도인의 내적 참회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성경과 교부들은 그중에서 특히 단식, 기도, 자선의 세 가지 형태를 강조한다.²⁰⁾ 이 셋은 각각 자신에 대한 회개, 하느님에 대한 회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회개를 나타낸다. 성경과 교부들은 죄의 용서를 얻는 방법으로, 세례와 순교를 통한 근본적인 정화 외에, 이웃과 화해하려는 노력, 참회의 눈물, 이웃의 구원에 대한 관심, 성인들의 전구, 그리고 “많은 죄를 덮어 주는”(1베드 4,8) 사랑의 실천 등을 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회개는 화해의 행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정의의 실천과 타인의 권리 옹호, 형제들에게 잘못을 고백함, 형제적인 충고, 생활에 대한 반성, 양심 성찰, 영적 지도, 고통을 받아들임, 정의를 위해 박해를 견딤 등으로 실현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회개의 길이다.²¹⁾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일상적인 회개와 참회는 성체성사가 그 원천이며 양식이다.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체로 양육되고 굳세어진다. 성체는 “날마다 짓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고 죽을죄에서 보호해 주는 해독제이다.”²²⁾

성경 읽기, 시간 전례와 주님의 기도, 모든 참된 예배와 신심 행위는 우리 마음에 회개와 참회의 정신을 되살려 주고, 죄의 용서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전례력에서 참회의 날과 시기(사순 시기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매주 금요일)는 교회가 참회를 특별히 실행하는 때이다. 이 시기는 영성 수련, 참회 예절, 참회의 표시인 순례, 단식과 자선 같은 자발적인 절제, 형제적 나눔(자선 활동과 선교 활동)

19) 예제 36,26-27 :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20) 토빗 12,8 :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 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21) 루카 9,23 :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2) 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 성체성사 교령, 제2장.

등을 위하여 특히 적절한 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와 참회의 과정을 잘 묘사하시는데, 이 비유의 중심인물은 ‘자비로운 아버지’이다.[32] 거짓 자유의 미혹, 아버지의 집을 떠남,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빠진 극도의 비참, 돼지를 칠 수밖에 없게 된 수치, 더 나아가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주림, 재산을 탕진해 버린 데 대한 반성, 뉘우침과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을 고백하겠다는 결심, 집으로 돌아옴, 아버지의 너그러운 환영, 아버지의 기쁨 등, 이러한 것들이 회개하는 과정의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아름다운 옷과 가락지와 즐거운 잔치는 하느님과 교회라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의 생명인 깨끗하고 품위 있고 기쁨 가득한 새 생활의 상징들이다. 당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를 이렇게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알려 주실 수 있었다.

7. 참회와 화해의 성사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의 단절이며 동시에 교회와 이루는 친교에도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가져다주고 교회와 화해를 이루게 하며, 고해성사는 이를 전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한다.

1) 죄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마르 2,10)고 말씀하셨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르 2,5) 하시면서 이 신적 권한을 행사하신다. 나아가 당신의 신적 권위로 이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교회가 기도와 생활과 실천으로써, 몸소 당신 피로 값을 치르고 얻어 주신 용서와 화해의 표지와 도구가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의 행사는 사도직을 맡은 이들에게 위임하셨다. 사도들은 “화해의 직분”(2코린 5,18)을 받았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견되었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하고 간곡히 권유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다.

2) 교회와 이루는 화해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활 동안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이 용서의 결과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졌거나 추방되었던 그들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여 주셨다. 이 사실을 보여 주는 명백한 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더구나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으셨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느님의 용서와, 하느님 백성의 품으로 돌아오는 복귀를 동시에 표현하는 놀라운 행위이다.²³⁾

23) 루카 19,9-10 :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하는 당신의 고유 권한을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죄인들을 교회와 화해시키는 권한도 주신다. 사도들이 지닌 교회 차원의 이 임무는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엄숙한 말씀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9).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다(마태 18,18: 28,16-20 참조).”²⁴⁾

“매고 풀다”는 말의 의미는, 교회가 그 친교에서 제외시키는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친교에서도 제외될 것이고, 교회가 친교 안에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당신과 이루는 친교 안에 받아들이신다는 것이다. 교회와 이루는 화해와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는 분리될 수 없다.

3) 용서의 성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의 모든 지체, 누구보다도 우선 세례 후 대죄에 떨어져 세례로 받은 은총을 잃고 교회의 친교에 손상을 입힌 사람들을 위하여 고해성사를 세우셨다. 고해성사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의화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²⁵⁾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겪어 온 이 성사의 규칙과 거행을 통틀어 볼 때, 불변하는 기본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구조는 한결같이 두 핵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성령의 감도로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 곧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중개를 통한 하느님의 행위이다. 곧 교회는 주교와 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고, 보속의 방법을 정해 주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며, 그와 함께 속죄한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치유되고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회복하게 된다.

서방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죄경은²⁶⁾ 이 성사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용서의 근원이시다.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들의

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24) 교회 헌장, 22항.

25)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많이 변했다. 처음 수 세기 동안은 세례를 받은 뒤에 특수한 대죄(예를 들어 우상 숭배, 살인 또는 간통죄)를 지은 경우의 화해는 매우 엄중한 징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기 전에, 흔히 여러 해 동안, 공적인 보속을 해야만 했다. (몇몇 대죄에만 해당되던) 이러한 ‘참회자 부류’에 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일이 드물었고, 어떤 지방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7세기에 동방 수도회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이 이른바 ‘사적인’ 속죄의 절차를 유럽 대륙에 전하였다. 이는 교회와 화해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공적인 속죄 행위를 요구하던 종전의 관행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 성사는 참회하는 사람과 사제 사이에서 비밀리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은 반복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성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는 한 번의 성사 거행으로 대죄와 소죄를 한 번에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고해성사를 오늘날까지 행해 오고 있다.

26)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 주셨으니,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몸소 이 교우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우의 죄를 사하나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써, 교회의 기도와 직무 수행을 통하여 죄인과 화해를 이루신다.

8. 참회자의 행위

1) 통회(痛悔)

참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이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²⁷⁾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라 한다.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 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죄도 용서받게 해 준다.²⁸⁾

‘불완전한’ 통회(늪우침)도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이 통회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인을 위협하는 영벌과 다른 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다(두려움의 통회). 이러한 양심의 동요는 은총의 감도 아래 성사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완성되는 내적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통회는 그 자체로서는 대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며, 고해성사로 용서받도록 준비시킬 뿐이다.²⁹⁾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 성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적당한 성경 본문들은 십계명에서,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한 가운데 윤리적인 부분, 예컨대 산상 설교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2)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은 단순히 인간적인 면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며,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도록 도와준다. 인간은 고백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리고 책임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친교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되어 새로운 미래가 가능해진다.

사제에게 하는 고백은 고해성사의 핵심 부분이다. “참회자들이 고백할 때는 진지하게 성찰한 뒤에 알아낸 모든 죽을죄를 열거해야 한다. 그 죄들이 매우 은밀한 것이고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만을 범한 것일지라도 그러하다.³⁰⁾ 때로 이 죄들은 영혼에 더욱 심한 상처를 입히며, 공공연하게 지은 죄들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³¹⁾

교회의 계명에 따라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뒤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대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³²⁾ 죽을죄를 지었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크게 통회를 했다고 해도, 성체를 모셔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고 또 고해 사제

27)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고해성사 교리, 제4장.

28)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고해성사 교리, 제4장.

29)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고해성사 교리, 제4장.

30) 탈출 20,17 :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31)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고해성사 교리, 제5장.

32) 교회법제914조.

에게 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먼저 고해성사로 사죄를 받지 않은 채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된다.³³⁾ 어린이들은 첫영성체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53]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잘못(소죄)도 고백하도록 교회는 크게 장려한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소죄를 고백하는 것은 양심을 기르고, 나쁜 성향과 싸우며,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성사를 통해서 자비로우신 성부의 은총을 더욱 자주 받으면 성부와 같이 자비로워지는 힘을 얻는다.³⁴⁾

3) 보속(補贖)

많은 죄들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 이를 갚기 위해서 가능한 일들을 해야 한다³⁵⁾ 단순한 정의도 이런 일을 요구한다. 그러나 죄는 결국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약하게 하며, 하느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를 해친다. 용서는 죄를 없애 주지만 죄의 결과로 생긴 모든 피해를 고쳐 주지는 못한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영적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더 실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법으로 죄를 '보상'하거나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갚음을 '보속'(補贖)이라고 부른다.

고해 사제는 고백자에게 보속을 정해 줄 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의 영적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보속은 가능한 한 지은 죄의 경중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 보속은 기도일 수도 있고, 헌금, 자선 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자발적인 절제, 희생이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인내로 받아들이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보속들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

33) 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 성체성사 교령, 제5장.

34) 양적인 면에서 고려할 수도 있으나, 대죄와 소죄의 구분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분명한 인식과 내적인 자유의 정도는 시기, 환경,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나아가 행위 자체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양자 사이의 본질적인 구분은, 대죄는 영혼 안에 있는 성성의 은총이 상실됨으로써 초자연적 생명을 잃는다는 것이고 소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 대죄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요소가 다 채워져야 한다.

1) 명령이나, 법의 중요성에 대해 양심이 확실히 죄라고 인식했을 때(앎).

2) 실제상, 또는 적어도 행위자의 판단 안에서 행했을 때(행함).

3) 의지의 자유로운 결단이었을 때(자유의지).

2. 소죄가 되기 위해서는,

1) 그 대상 자체가 미비하거나

2) 지식 부족, 부주의 등으로 자유의지가 결여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외적인 법의 구분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야말로 참으로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마태 7,14-23), 개개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내적 자세와 생활 태도를 보아야 한다. 궁극적인 악성은 내적 자세에 달려있다. 하느님과 온전한 적대관계에 있어 벌을 받기에 마땅한 자라 해도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그가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마르 13,37 참조). 그리스도교 신자가 죄에 관해 안정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은 죄의 경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곧 하느님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동료 인간들에게 계속 전해주어야 한다.

35)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되돌려 주는 일, 모함당한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손해를 배상하는 일 등

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준다. 보속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마 8.17) 때문에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의 보속, 곧 우리 죄 때문에 치르는 보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처지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³⁶⁾ 이처럼 사람은 결코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³⁷⁾ 보속한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부께 바쳐지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께 받아들여진다.

9. 고해성사의 집전자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무를 맡기셨으므로,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주교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은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실제로 주교와 사제들은 성품성사의 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할 뿐 아니라 교회와도 화해한다. 그러므로 개별 교회의 볼 수 있는 으뜸인 주교는 예로부터 화해의 주된 권한과 직무를 가진 사람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왔다. 주교는 고해성사 규율의 감독이다.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주교나 (또는 수도회 장상이나) 교황에게 위임을 받아 고해성사의 직무를 수행한다.³⁸⁾

사제는 교우에게 고해성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하며, 신자가 합리적으로 이 성사를 요청할 때마다 언제나 기꺼이 들어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거행할 때 사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착한 목자, 상처를 싸매 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탕자를 기다리다 맞아들이는 아버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는 의로운 재판관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한마디로 사제는 죄인에 대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표지이며 도구이다.

고해 사제는 하느님의 용서를 마음대로 다루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이 성사의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에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터득해야 하며, 죄에 떨어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고해 사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의 교도권에 충실해야 하며, 고백하는 사람을 치유와 완전한 성숙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는 고백자를 자비로우신 주님께 맡겨 드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속죄해야 한다.

36) 필리 4.13 참조.

37) 루카 3.8 참조.

38) 특히 중대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가장 엄한 교회의 벌인 파문이 내려진다. 파문을 당하면 성사를 받지 못하며, 일정한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한다.[66] 이러한 파문을 푸는 권한은 교회법에 따라 그 지역의 주교와 교황, 또는 이들에게서 권한을 받은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다.[67] 파문된 사람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는, 고백을 들을 권한이 없는 사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제가 모든 죄와 파문에서 그를 풀어 줄 수 있다.[68]

이 직무는 미묘하고 중대한 것이며,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므로, 교회는 고백을 듣는 모든 사제가 고백자에게서 들은 죄에 대해 절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매우 준엄한 벌을 받는다고 천명한다.[71] 고해 사제는 고해를 통하여 고백자들의 삶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비밀을 ‘성사의 봉인’(고해 비밀)이라고 한다. 고백자가 사제에게 말한 것은 성사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10. 고해성사의 효과

고해성사의 완전한 효능은 하느님의 은총을 회복시켜 주고 지고한 우정으로 하느님과 결합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사의 목적과 효과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이다. 통회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평화와 안심이 따르고, 힘있는 영적 위로가 더해진다. 실로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성사는 참된 ‘영적 부활’과 하느님 자녀로서 지니는 품위와 삶의 선익을 회복시켜 주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이다.

이 성사는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 준다. 죄는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고해성사는 그 친교를 바로잡고 회복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는 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교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 성도들과 친교를 회복하거나 이를 확인받은 죄인은, 아직 나그넷길에 있거나 이미 천상 고향에 있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살아 있는 모든 지체와 영적인 자산을 나눔으로써 굳건해진다.

하느님과 하는 이 화해는 죄가 만들어 냈던 균열을 다시 메우는 여러 수준의 다른 화해에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용서받은 참회자는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과 화해하며, 거기서 참된 자아를 회복합니다. 그다음에, 그는 자기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형제들과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와도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창조계와도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사에서 죄인은 자신을 하느님의 자비로운 심판에 맡겨 드림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상의 삶이 끝날 때 받게 될 심판을 앞당겨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 현세 생활에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며, 대죄를 지은 채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밖에 없기 때문이다. 죄인은 참회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섬으로써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요한 5.24).

11. 대사(大赦)

1) 대사란?

대사란, 이미 그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잠시적인 벌(暫罰)을 하느님 앞에서 면제해 주는 것인데, 선한 지향을 가진 신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교회의 행위를 통해 얻는다. 교회는 구원의 분배자로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보속의 보물을 자신의 권한으로 나누어 주고 활용한다.

대사는 죄 때문에 받게 될 잠시적인 벌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느냐, 전적으로 면제하느냐에 따라 부분 대사와 전대사로 구분된다. “어느 신자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대사를 얻을 수 있고 또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81]³⁹⁾

2) 죄에 대한 벌

교회의 이러한 교리와 관습을 이해하려면 죄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죄는 우리에게서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박탈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하는데,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것을 죄의 ‘영벌’이라고 한다. 한편 모든 죄는, 소죄까지도, 피조물들에 대한 불건전한 집착을 초래하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나 죽은 뒤에 연옥이라고 부르는 상태의 정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화로 이른바 죄의 ‘잠벌’에서 벗어난다. 이 두 가지 벌을 하느님께서 외부에서 가하시는 일종의 복수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열렬한 사랑에서 나오는 회개는 죄인을 온전한 정화에 이르게 하여 아무런 벌도 남지 않게 할 수 있다.⁴⁰⁾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맺는 친교를 회복하면 죄의 영벌은 면제되지만 잠벌은 남아 있다. 그리스도인은 갖가지 고통과 시련을 인내로 견디고, 때가 되면 죽음을 차분한 마음으로 맞음으로써 죄의 잠벌들을 은총으로 받아들일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비와 자선의 행위와 더불어 기도와 여러 속죄 행위로 “묵은 인간”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갈아입도록 힘써야 한다.

3) 성인들의 통공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끗이 정화하고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은 외롭지 않다. 하느님 자녀 각자의 생명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초자연적 단일성 안에서, 마치 신비로운 한 인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생명과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

성인들의 통공 안에는 신자들 — 이미 천상 고향에 이른 사람들, 연옥에서 속죄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지상에서 순례하고 있는 사람들 — 사이에 변함없는 사랑의 유대와 모든 선의 풍부한 나눔이 있다. 이러한 놀라운 교류로, 어느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었던 손해보다는, 한 사람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선익이 훨씬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성인들의 통공에 의지하면 통회하는 죄인이 죄의 벌에서 더 일찍, 더 효과적으로 정화될 수 있다.

우리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이 영적인 재산을 교회의 보화라고 부른다. 이 보화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쌓이는 물질적인 부요와 같은 어떤 재물의 총화가 아니라,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도록 바쳐진 우리 주 그리스도의

39) 교회법 제994조.

40) 트리엔트 공의회, 제14회기, 고해성사 규정, 제12-13조.

속죄와 공로이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무한하고 무궁한 가치가 있는 보화이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속량 공로가 충만하다.

“이 보화에는 무엇보다도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모든 성인의 기도와 선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참으로 하느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닌다. 그들은 모두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살며 성부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얻었고 신비체의 일치 안에서 형제의 구원에 협력하였다.”⁴¹⁾

4)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하느님의 대사

교회를 통하여 대사를 얻는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매고 푸는 권한으로 그리스도인을 위해 중개하여, 그의 죄로 말미암은 잠벌의 사면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얻도록,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의 보고를 그에게 열어 준다. 이처럼 교회는 그 신자를 도울 뿐 아니라, 신심 행위와 참회와 자선을 행하도록 그를 격려하기도 한다.⁴²⁾

정화 중에 있는 죽은 신자들도 성인들과 통공을 이루는 같은 지체들이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한 다른 도움과 더불어, 특히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잠벌을 사면해 주는 대사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다.

12. 고해성사의 거행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도 전례 행위이다. 이 전례의 거행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사제의 인사와 축복, 양심을 비추고 통회를 일으키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읽음, 뉘우치도록 권고함, 죄를 인정하고 사제에게 밝히는 고백, 보속을 정해 주고받음, 사제의 사죄경, 감사의 찬미, 사제가 고백자를 축복하여 돌려보냄 등으로 이루어진다.⁴³⁾

1) 공동 거행

고해성사는 여럿이 함께 고백을 준비하고, 받은 용서에 함께 감사하는 공동 거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때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개별적인 사죄는, 독서와 강론, 공동의 양심 성찰, 공동의 용서 청원, 주님의 기도, 공동의 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 전례 안에 삽입되어 있다. 고해성사의 이 공동 거행은 참회의 교회적

41) 바오로 6세, 교황령 *Indulgentiarum doctrina*, 5.

42) 바오로 6세, 교황령 *Indulgentiarum doctrina*, 8.

43) 비잔틴 전례에서는 용서의 신비를 놀랍도록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탄원 형태의 사죄경이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언자 나탄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셨으며, 베드로가 슬피 울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고, 죄 많은 여자가 당신 발에 눈물을 쏟았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으며, 세리와 탕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하느님께서 죄인인 나를 통하여 이 세상과 내세에서 그대를 용서하시어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 대전에 섰을 때 그대를 단죄하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아멘.”(1481항)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다. 고해성사는 그 거행의 방식이 어떠하든, 본질상 언제나 전례 행위이며, 교회적이고 공적인 행위이다.⁴⁴⁾

2) 일괄 사제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 일괄적으로 고백하고 일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고해성사의 공동 거행이 가능하다. 중대한 필요란, 죽음의 위험이 임박하여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고백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필요는, 또한 고백자들의 수로 보아,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 고백을 듣기에는 고해 사제의 수가 부족하여서, 고백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오랫동안 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하거나 영성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 사죄가 유효하려면 신자들이 적절한 때에 자신들의 대죄를 고백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⁴⁵⁾ 일괄 사죄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는 교구장이 판단한다.⁴⁶⁾ 큰 축일이나 순례를 위해 많은 신자가 모이는 것은 이 중대한 필요성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⁴⁷⁾

그러나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일반적 방식이다.”⁴⁸⁾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하나의 성사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르 2,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95] 정성을 기울여 고쳐 주시는 의사이시다. 그들을 일으켜 형제들과 다시 친교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개별 고백은 하느님에 대한 화해와 교회에 대한 화해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형식이다.

13. 마무리

고해성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통회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죄를 고백하고 죄로 인하여 손실된 것을 기워 갚는 성사이다. 그리고 하느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초자연적 생명에 살면서 평화를 얻는 성사가 바로 고해성사이다. 따라서 이 성사는 죄를 뉘우치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으로써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회개로 ‘낡은 자기 자신’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으로서,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새로운 성사와도 같은 것이다.

44) 전례헌장, 26-27항.

45) 교회법 제962조 1항 참조.

46) 교회법 제961조 2항 참조.

47) 교회법 제961조 1항, 2 참조.

48) 「고해성사 예식서」, 일러두기, 31항.

고백자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일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잃었던 초자연적 은총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하여 고백자는 과거의 생활에서 얻은 공로와 덕행을 다시 찾게 된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느님은 과거의 죄를 잊으시고,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한결같은 사랑만을 베푸신다. 또한 고해성사는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교회 공동체와 다시 일치시켜주고, 하느님의 백성의 구성원으로 다시 일치하게 하신다. 이로써 죄로 유인하는 위험한 기회와 유혹에 대항해서 싸울 힘과 그에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 이리하여 죄인인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사랑으로 일치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머물면서, 하느님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된다.